2027학년도 수시 모의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예시 답안

Ⅰ. 전반적인 출제 의도 및 특징

202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의 모의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한 학업역량과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출제하여 입학전형의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단순한 지식의 암기 여부를 평가하기보다,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술고사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를 비교, 분석하며,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전개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함께, 다양한 교과 영역의 내용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모의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동서양의 고전, 문학작품, 사회/문화 관련 비평 등 다양한 제시문을 활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핵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모든 제시문과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되었으며, 별도의 선행학습이나 정규 교육과정 밖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수험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적절히 변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공교육 중심의 학습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학생 선발이라는 논술고사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Ⅱ. 문항의 구성

본교의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논술의 성격을 지닌다.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인문학적 이해 능력과 사회과학적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며, 이에 더하여 통합적 사고, 비교 및 대비 능력, 표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문Ⅰ 모의논술고사는 인문학적 소양과 사고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1개의 영어 제시문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제시문이 활용되었다.

인문Ⅱ 모의논술고사는 논리적 추론 능력과 자료 해석 능력을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5개의 제시문과 2개의 소제시문이 활용되었다.

자연Ⅰ, 자연Ⅱ 모의논술고사는 방정식, 함수, 수열, 극한, 함수의 미분 및 정적분, 확률과 통계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제당 3~5개의 소문항이 제시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착안, 기획, 수행에 이르게 하는 수리적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2. 인문Ⅱ

[문항1]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정리하고, 그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존 스튜어트 밀과 존 듀이의 입장을 각각 비교하시오. [20점]
(2) 제시문 [나]에 나타난 두 대립적 관점에 대한 제시문 [다]의 견해를 설명하시오. [20점]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서구 정치사상의 양대 본류를 형성해 온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사상가들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건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역할 사이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자 사이의 모순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어떻게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자유를 위한 가치와 집단의 지속성 사이에 통합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올바로 읽어낼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자 한다.

■ 자료 출처

- 제시문 [가]: 『윤리와 사상』(씨마스, pp.180-181)
- 제시문 [나]: EBS 2024 수능특강 『국어』(pp.76-77)
- 제시문 [다]: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이환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999, pp.19-21),
『윤리와 사상』(씨마스, p.187)

■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서양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 논쟁의 출발점이 되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존재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바람직한 덕성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일이 국가에 주어진 일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서양 근대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을 존 스튜어트 밀과 존 듀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윤리와 사상 과목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자유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간섭도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두 입장의 차이를 정리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중에서 자유주의 이념과 공동체주의의 이념 사이에 자리 잡은 모순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사회계약론'을 통해 제시하려는 루소의 문제의식을 잘 대변하고 있다. 특히 자유로운 개인이 왜 계약을 맺어 스스로를 구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요구를 '일반의지'라는 가상의 관념을 통해 내세우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 예시 답안

(1)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공동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는

데,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집단생활에 요구되는 핵심적인 덕성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논의는 도덕적 삶을 위해 구성원들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국가에 주어진 최고의 역할이며, 이를 통해 그는 개인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스스로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다. 즉 밀의 입장은 공적 행위 이전에 사적 존재로서 개인의 행위가 보호받아야 하는데, 개인은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밀의 견해가 완전히 대립적인 것도 아니다. 이는 밀조차도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성 함양에서, 밀은 합리적 개인을 위한 교육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국가의 기능을 둘러싼 두 사람의 입장은 어느 정도 근접한다.

한편 존 듀이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주의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듀이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사회의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개인 이전에 공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듀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는 제삼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공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사적 영역에 대한 간섭이 불필요하다는 자유주의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바람직한 덕성 함양에 초점을 맞춘 반면, 사적 영역에 대한 듀이의 개입 논리는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가 제삼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는 차이를 보인다.

(2)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서로 다른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개인주의는 스스로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주권을 바탕으로 한 절대적인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데, 존 스튜어트 밀로 대표되는 이 사유에서는 개인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비해 존 듀이의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이 존재하기 위한 공적인 것의 중요성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데, 개인들 사이의 행위가 제삼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대립적 관점에 대하여 제시문 [다]는 자연 상태에 놓인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접근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던지고 있다. 힘의 제약을 지닌 인간들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개인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을 강조하면 모두를 위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고, 집단을 강조하면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제시문 [다]에서는 사회계약론을 제시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 그 최종적인 형태는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연합의 형태이다. 이를 위해 제시문 [다]는 '일반의지'라는 가상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격이 지닌 자유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통일적인 '공적 인격'을 만들어낼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공적 인격을 통해 개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축소시키지만 동시에 전체의 협력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문 [다]의 견해이다.

[문항2] 제시문 [마]의 소셜 미디어상 가짜 뉴스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서동요」의 확산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하여 「서동요」의 확산을 막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30점]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제시문 [마]의 소셜 미디어상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한 설명과 네트워크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서동요」가 확산되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막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응시자는 「서동요」가 서동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져 아이들과 도성 사람들의 관계망을 따라 확산되고, 선화 공주의 평판 훼손과 유배라는 현실적 결과를 낳았음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노드, 연결선, 허브, 밀도, 선호적 연결, 포워딩 제한 정책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정보가 여러 경로로 퍼진 뒤에는 일부 전달자를 제한하더라도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료 출처

- 제시문 [라]: 민현식 외, 고등학교『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2018, p.215.
- 제시문 [마]: EBS.『올림포스 독서』, 2018, p.178
  이동원, 「가짜 뉴스 '딱지' 붙자… 일반인 확산 줄고 인플루언서 포워딩은 늘어」,『동아일보』, 2022. 9. 14.

■ 문항 해설

제시문 [라]에서 서동은 선화 공주를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퍼뜨린다.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에게 마라는 보상을 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들이 쉽게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 형식을 활용하여 선화 공주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시킨다. 이 노래는 수도에 가득 퍼져 궁궐에까지 알려지고, 백관의 간언을 거쳐 선화 공주가 유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서동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구전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고 현실적 처분을 낳은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가짜 뉴스의 정의,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포워딩 제한 정책의 한계를 설명한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된 거짓 정보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는 노드가 되고, 이용자 사이의 관계는 연결선이 된다. 연결 정도가 높은 노드는 허브 역할을 하며,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이용자의 포워딩을 제한하더라도 다른 허브나 다른 경로가 존재하면 가짜 뉴스의 확산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

■ 예시 답안

제시문 [마]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된 거짓 정보이며, 소셜 미디어의 공유와 재전달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보면, 제시문 [라]의 「서동요」 역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주체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

사람들 사이에 확산시킨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서동은 선화 공주를 만나기 위해 선화 공주가 자신과 몰래 정을 통한다는 내용의 노래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신라 도성의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의 진위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쉽게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 형식을 활용하여 노래를 퍼뜨렸다. 이처럼 「서동요」는 언론 보도 형식이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아니지만, 특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주체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략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의 확산 원리와 연결된다. 다만 「서동요」는 동요라는 구전 양식과 도성 사람들의 대면적 관계망을 통해 확산된 반면, 현대의 가짜 뉴스는 언론 보도의 형식을 빌려 소셜 미디어의 공유와 재전달 기능을 통해 확산된다는 차이가 있다.

「서동요」의 확산 결과도 가짜 뉴스의 결과와 유사하게 현실적 피해를 낳는다. 「서동요」는 수도에 가득 퍼져 궁궐에까지 알려졌고, 백관들은 이 노래의 내용을 문제 삼아 선화 공주를 먼 곳으로 유배 보내도록 간언하였다. 이는 정보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에 그치지 않고, 특정 인물의 평판을 훼손하며 실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셜 미디어의 가짜 뉴스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며 시민의 정치적 판단과 공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서동요」 역시 선화 공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배라는 현실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제시문 [마]의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하면, 「서동요」의 확산을 막기 어려운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노드가 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연결선이 된다. 「서동요」의 경우 서동과 아이들, 도성 사람들이 각각 노드가 되며, 아이들 사이의 관계와 도성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노래가 이동하는 연결선이 된다. 서동이 처음 노래를 만들었더라도, 아이들이 이를 부르고 도성 사람들이 다시 전하면 정보는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여러 연결선을 따라 퍼진다. 특히 도성처럼 사람들의 관계가 촘촘한 공간에서는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져, 한 번 퍼진 정보가 여러 경로로 반복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서동은 마를 매개로 여러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서동요」 확산의 중심 노드, 곧 허브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 서동과 연결된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노래가 전달될 수 있는 경로도 늘어나고, 이미 널리 퍼진 노래일수록 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아 다시 전달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많은 연결을 가진 노드가 새로운 연결을 더 쉽게 얻는다는 선호적 연결의 논리와도 연결된다. 현대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이용자의 포워딩을 제한하더라도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거나 다른 허브 노드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 가짜 뉴스가 다른 경로로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것처럼, 「서동요」도 최초 유포자인 서동이나 일부 전달자인 아이들을 제지하더라도 이미 노래가 도성 사람들의 관계망 속으로 들어간 뒤에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계속 전달될 수 있다. 결국 「서동요」와 같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여러 노드와 연결선, 높은 밀도, 허브의 존재, 반복적 재전달을 통해 확산되므로, 일부 유포자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그 확산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

[문항3]

⑴ 제시문 [Ⅰ]을 바탕으로 아래 상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0점]

> 한국 거주자의 크립토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크립토 예금이다. 최근 한국 내에서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거주자 크립토 예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⑵ 아래 무역투자협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시문 [Ⅰ]과 제시문 [Ⅱ]를 참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최근 한국과 E국 사이에 타결된 무역투자협정의 핵심은 E국이 한국에 관세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한국이 E국에 3,500억 크립토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특히, E국의 조선업 인프라에 1,500억 크립토를 우선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 2,000억 크립토를 E국의 반도체·인공지능 등의 공급망 구축 및 항공기 구매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2029년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⑶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안정과 더불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상승률 2%와 외환보유고 3천억 크립토라고 가정하자. 만약 물가상승률이 π%이고 외환보유고가 κ천억 크립토라면,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W(\pi,\kappa)=0.1\times(\pi-2)^2+0.5\times\max(3-\kappa,0).$$

중앙은행은 위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려 한다. 함수 $\max(a,b)$는 a, b중 큰 값이다. 미래 상황에 대한 손실함수는 예상 물가상승률(π^e)과 예상 외환보유고(κ^e)를 대입하면 된다.

$$W(\pi^e,\kappa^e)=0.1\times(\pi^e-2)^2+0.5\times\max(3-\kappa^e,0).$$

예상 물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 기댓값이며, 예상 외환보유고는 외환보유고 기댓값이다. 아래에 제시된 내년도 두 시나리오 가운데 중앙은행이 더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지 답하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 [시나리오 A]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3%가 될 확률은 0.5, 5%가 될 확률은 0.5이다. 그리고, 내년도 외환보유고가 2천억 크립토가 될 확률은 0.6, 4천억 크립토가 될 확률은 0.4이다.
> [시나리오 B]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3.5%가 될 확률은 0.5, 4.5%가 될 확률은 0.5이다. 그리고, 내년도 외환보유고가 3천억 크립토가 될 확률은 0.8, 5천억 크립토가 될 확률은 0.8이다.

■ 출제 의도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자료 출처

- 제시문 [Ⅰ], [Ⅱ] : 고등학교『경제』교과서 환율 내용에 기초하여 재기술.

■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

(1) 환율은 외환(크립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균형 가격이다. 환율 상승 예상에 기인한 거주자의 크립토 예금 증가는 외환(크립토) 수요를 증가시켜 환율을 높일 것이다.

(2) (i) 3,500억 크립토의 대 E국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립토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그로 인한 환율 상승이 예상된다.

(ii) (대규모) 해외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약 중앙은행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환율이 급상승할 수 있다. 만약, 안정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보유고가 확보되지 못하게 되면 외환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다.

(3) [시나리오 A] 예상 물가상승률 π^e은 4%(=$3\% \times 0.5 + 5\% \times 0.5$).

예상 외환보유고 κ^e는 2.8천억 크립토(=$2 \times 0.6 + 4 \times 0.4$).

손실함수 값 $W(4, 2.8) = 0.1 \times (4-2)^2 + 0.5 \times \max(3-2.8, 0) = 0.5$

[시나리오 B] 예상 물가상승률 π^e은 4%(=$3.5\% \times 0.5 + 4.5\% \times 0.5$).

예상 외환보유고 κ^e는 4.6천억 크립토(=$3 \times 0.2 + 5 \times 0.8$).

손실함수 값 $W(4, 4.6) = 0.1 \times (4-2)^2 + 0.5 \times \max(3-4.6, 0) = 0.4$

[중앙은행 입장] 손실함수 값이 더 작은 시나리오 B를 선호할 것이다.